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년 12월 17일

CUOMO 주지사, 태풍 SANDY로 인해 학업을 포기한 학생에게 SUNY 이사회가 수업료를 환불한다는 내용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립대 학장이 태풍 Sandy의 영향으로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환불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뉴욕주립대 이사회가 이례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태풍 Sandy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SUNY 학생들은 수업료 환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가족과 함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UNY 캠퍼스는 긴급 지원 작업자를 위한 활동 무대였으며 이웃들에게 피난소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뉴욕주 전체의 학생들은 기부 및 자금 조성 조직도 결성했습니다. Zimpher 교육감과 McCall 학장의 뉴욕주의 대응 및 대처 노력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UNY 이사회 H. Carl McCall 회장은, "태풍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SUNY 교육 관련 비용을 되돌려주는 정책을 펼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이 태풍 Sandy의 피해 속에서 다시 일어서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었고 뉴욕주 주립대는 주지사의 뜻을 이어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UNY의 Nancy L. Zimpher 교육감은, "우리 캠퍼스가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뉴욕주의 여러 장소에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SUNY 학생들에게 몇 가지 재정적 지원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보여준 리더십에 감사드리며 피해를 입은 학생이 수업료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이사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UNY는 태풍 Sandy로 문제가 생겨 2012녀 가을 및/또는 2013년 봄 학기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해 각 캠퍼스의 학장이 수업료 납부를 유예하고 납부한 수업료는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립대 규정은 각 캠퍼스 학장의 재량에 따라 학업 중간에 학생이 휴학하는 경우 "재난으로 인한" 학업 중단과 수업료 환불을 위한 규정을 제공하는데 학기의 중간 과정 이전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태풍 Sandy는 2012년 가을 중간고사 기간에

발생했다는 점과 태풍의 심각도를 고려하여 SUNY 리더십은 학생에게 수업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